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 얼음 깨기

### 나는 훗날 무엇을 남길 것인가?

50-60년대 대단히 유명했던 여배우 할리우드의 오드리헵번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세계적인 여배우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드리헵번의 인기가 더 좋았지만, 서양권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여배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배우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그녀들의 삶을 재조명하며, 그녀들은 화려함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였고, 또한 그녀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칼럼을 게재합니다. 먼저, 오드리헵번이라는 배우는 젊은 시절 아름다운 여인으로 평가받았는데,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프리카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아름다웠다.” 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생애 수많은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결혼을 13번이나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아주 추했다.”

[나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교회행사

#### 11월

2일	세례문답식, 신임투표
3일	세례식
10일	성찬식
17일	2기 더가족세미나 시작

#### 12월

5-7일	교회 김장
8일	더가족세미나 수료
15일	여전도회 총회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 경배 찬양

###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 소식

#### 1. 교사 모집

2025년 주일학교, 어와나를 섬기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부서별로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2. 어와나트랙(중등과정)

2025년 어와나 중등과정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이번주부터 12월 한달 동안 자유롭게 오셔서 참관 하실 수 있습니다. \*12우리 매주 주일 2:30-4:30에 2층 사무엘의 소리(유치부실)

#### 3. 새해 말씀과 기도 더말씀으로 사경회

2025년 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매일 저녁 7:30 이지웅 목사(더바일블미니스트리 대표)를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한뼘한뼘 수놓으며 여는 새해”라는 주제로 더바이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비워두세요.

### 선교

### [임상택 선교사]

#### 감비아

1. 우기철에 시비노, 화자라, 지팡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읽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역에 건강과 지혜를 주소서
2. 감비아 ‘오픈더북’ 자료 준비에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정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3. 까꾸물력교회의 바카리(사모 자넷)에게 믿음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소서

### 한 문장 큰 울림

사람은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가장 교만하다.

- C.S 루이스 -

## [암 9: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아모스 1-2장은 이방을 향한 신탁을, 3-8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고발과 심판 선언입니다. 지금껏 죄의 고발과 심판 선언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넷째 환상(여름 과일 바구니)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을 선언했고, 본문의 다섯째 환상(1~10절)을 통해 확정된 심판의 시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15절은 심판 선언과 함께 회복을 선언하시며 아모스의 신탁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선언은 죄로 물든 옛 질서를 파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집요하고 철저합니다. 그 심판으로 도망갈 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한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 1. 죄의 심판에 대하여 집요하고 철저하신 하나님

1절 제단을 파괴하는 이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뿔)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울 가득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의 기초(자체)를 파괴하십니다. 그 파괴의 칼로부터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더라도 찾아내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9절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음란한 제단이 철저하게 파괴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음의 음란한 우상,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불의한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 2.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

5-6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가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출애굽 사건도 블레셋, 아람이 각각 갓돌과 가르에서 나온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삶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노예였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자유를 준 것은 자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다른 이방신을 자유롭게 섬기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다. \*우라도 구원의 주를 잇는다면, 그 심판의 칼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 3. 내가 일으키고, 돌이키며,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엄위하게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11절과 14-15절은 하나님께서(내가) 직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포로의 삶에서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늘 백성으로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일하게 여기면 곤란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고 엄위한 심판 속에서도 긍휼의 씨앗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게 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씨앗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과 긍휼의 약속을 남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통치 아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나눔] 아모스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